

'5·31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공약 평가**

<참공약 선택하기>

◇어떻게 평가했나=전국 3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상임대표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지난 2월 1일 출범 이후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SMART)-셀프(SELF) 등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후보자들의 매니페스토 작성과 지원해왔다. 지난 4월 7일에는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광주에서 '매니페스토 순회아카데미'를 개최했으며 5개 정당 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일 평가지표안을 확정했다.

정용덕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36명의 평가단은 지난 19일부터 이를동안 서울에서 1박2일동안 학술하면서 지역평가단이 구성되지 않은 광주와 전남을 비롯 서울,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후보자들은 10개 공약은 후보자측에 요청해 제출받았다. 평가지표로는 크게 두 가지 블을 적용했다. 스마트(SMART) 지표는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실현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시간계획명시(Timed)의 앞 글자를 판용으로 공약으로 갖춰야할 조건이 잘 갖춰졌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셀프(SELF) 지표는 지속성(Sustainability), 차지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계획(Follow-up)의 뜻으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에 용이하다. 추진본부는 이를 토대로 23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우수 공약을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살펴본다.

조영택 호남고속철 '우수' 구도심대책 '미흡'**박광태 복합 도서관 '우수' 항공 우주 '미흡'****광주시장 후보****■스마트(SMART) 지표로 평가한 공약**

후보	조영택 열린우리당	한 영 한나리당	박광태 민주당	오병윤 민주노동당
우수 공약	▲2013년 동아시아대회 유치 ▲5·18 국립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 ▲참여정부 임기 내에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 추진	▲선진화된 노인복지정책수립 노후생활을 보장 ▲예향이 살아 숨쉬는 동양의 피리로 육성 ▲'시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선	▲여린이 복합도서관 설립 ▲푸른 숲 조성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빛고을 시민센터 건립	▲임기 내 91개 행정동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중소기업 취업보조금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만개 창출 ▲초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미흡한 공약	▲공동화된 구도심(동·남구)의 광역적 도시개발 추진 ▲서민과 종신층을 위한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R&D 특구 지정	▲재래시장과 지역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 ▲지역주택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의 선진화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 ▲항공우주산업 육성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시민참여조례 실시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공공서비스 시설(복지·의료·문화시설)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시민참여조례 실시

스마트 분야에서 박광태·조영택 후보, 지속성에선 오병윤·박광태 후보, 차지역량강화는 박광태·오병윤 후보, 지역성에선 조영택·박광태 후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광태 후보의 경우 4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성 분야가, 조영택 후보는 지속성, 오병윤 후보는 스마트 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4명의 후보자 모두 이 행정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스마트(SMART) 평가=5대 우수 공약에 민주당 박광태 후보와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의 공약이 각각 2개씩 포함됐다. 박광태 후보의 '여성 인력의 능력개발 및 활성화'와 'LED(발광다이오드)밸리 조성'은 우수 공약 1·2위에 선정됐다.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의 '중소기업 취업보조금을 통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의 '참여정부 임기내 호남고속철 조기 착공 추진'과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이 그 뒤를 이었다.

추진본부는 '여린이 복합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실현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LED밸리 조성'은 지역성장동력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자리 창출'

한 영 여성 능력개발 '우수' 재래시장 '미흡'**오병윤 일자리창출 '우수' 시민참여조례 '미흡'**

은 공약선정 이유가 타당하고 추진방법 또한 사회적 효과 및 현실성이 있으며, '호남고속철'과 '인권테마파크'는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광주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공약이라고 진단했다.

▲지속성(Sustainability)=한나리당 한영 후보의 '여성 인력의 능력개발 및 활성화'와 사회참여비율의 무지적 확대'가 가장 우수한 공약이다. 4명의 후보자 모두 이 행정과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추진본부는 '여린이 복합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실현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LED밸리 조성'은 지역성장동력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지역량 강화(Empowerment)=우리당 조 후보의 '민원행정 및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 응답률 제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민주당 박 후보의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과 'LED밸리 조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시민참여조례 실시', 한나리당 한 후보의 '재래시장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은 우수 공약으로 꼽혔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추진본부는 '여린이 복합도서관 건립'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으로 실현 가능하고 시기적절하며 'LED밸리 조성'은 지역성장동력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지역량 강화(Empowerment)=우리당 조 후보의 '민원행정 및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 응답률 제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범석 농어촌개발 '우수' 실버타운 '미흡'**박준영 관광육성 '우수' 에너지사업 '미흡'****전남지사 후보****■스마트(SMART) 지표로 평가한 공약**

후보	서범석 열린우리당	박재순 한나리당	박준영 민주당	박웅두 민주노동당
우수 공약	▲혁신기업도시 ▲농어촌 개발 ▲광양항, 목포 신항 개발	▲노인·고령화 대책 (응급호출 발신기 지원)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 ▲농림축수산 시설 및 농기계 등의 장기 저자 입대제도 도입(LBLT 방식)	▲섬과 해양·안전·해양자원을 활용 관광 및 전략산업 육성 ▲대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건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치기반 조성	▲농기의 인정적인 소득보장 학교 급식 지원센터 설립 ▲도정에 주민참여를 보장 예산의 오남용 차단 ▲임면동 공공보육시설을 농촌부터 확충
미흡한 공약	▲실비·관광·의료·디온 신규 조성 및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칭출 및 유지 ▲우수기업 1개 이상 유치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디양화 국제 박람회 개최 ▲산단·농공단지 활성화 ▲소형여객기 디도해 관광 헬기 운행 ▲항공우주 Science Park 조성 ▲신·재생에너지 4대 선도사업 추진	▲광양민경제자유구역을 등북아 물류 및 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 ▲항공우주 Science Park 조성 ▲신·재생에너지 4대 선도사업 추진	▲농수산물 가격의 폭락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 조성으로 소득안정 ▲도박·황색사업 주주의 J프로젝트 반대, 환경친화적 관광사업 추진 ▲농기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확대

박재순 부패 방지 '우수' 박람회 개최 '미흡'**박웅두 학교 급식 '우수' 직불제 확대 '미흡'**

스마트분야에서 박준영·박재순, 지속성에선 박웅두·박준영, 역량강화는 박준영·서범석, 지역성에선 박준영·서범석 후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준영 후보의 경우 4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속성 분야의 경우 타 후보자들과 큰 차이가 없어 당선된다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짐작됐다. 서범석 후보는 스마트 분야가, 박재순 후보는 지속성, 박웅두 후보는 지역성과 역량강화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4명의 후보자 모두 이행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스마트(SMART) 평가=5대 우수 공약에 민주당 박준영 후보가 2개, 열린우리당 서범석·한나리당 박재순·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의 공약이 한 개씩 포함됐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성(Locality)=민주당 박광태 후보의 '첨단노후화로 산업 육성기반을 위한 국립장수과학연구소 설립 유치'가 고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렸고 지속성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공약의 선정됐다. 우리당 조 후보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은 광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문화도시 건설의 측면에서 좋은 평점을 얻었다. 우리당 조 후보의 '국립5·18민주묘지 주변 인권테마파크 조성'과 민주당 박 후보의 '문화산업 콤플렉스(CIC) 기반조성', 민주노동당 오 후보의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위적 방식이 아닌 생태하천 광주천 살리기' 등이 그 뒤를 이었다.</p